

신안군, 작은섬여객선터미널내 카페 '호응'

결혼이주여성 3명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지역주민 힐링 공간 자리매김...월 4~5백만 원 매출 달성

신안군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올해 2월에 오픈한 장산 축강 여객선 터미널 내 장산점 카페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신안군이 신안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금을 지원하고 센터 자부담비를 투입하여 카페를 설치했고,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명이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카페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로 근무하고 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조성된 카페다 보니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월 4~5

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커피 등 매출액이 2백만 원을 달성했다. 출렁이는 파도와 섬과 육지를 오가는 한적의 배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장산점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일상의 행복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 풍광이 더해져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강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은 "카페가 운영되면서 시설물 관리가 청결해지고, 탁자 등 편의시설이 재단장되어 지역



분위기도 생기와 활기가 넘친다"라고 전했다. 박우람 신안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

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카페가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소통과 힐링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목포시민 한마음 나무심기 기념행사 개최

제104회 전국제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기억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땀과 열정으로 성공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4회 전국제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난 11일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의 번영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 주변 화단에 23그루의 은목서를 식수했다.

이날 행사는 2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23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시는 기념식수 표지판에 양대 체전을 성공으로 이끈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박홍을 목포시장은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이다"면서 "각 동마다 한 그루씩 은목서를 심은 만큼 앞으로도 더욱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 어르신들, 시니어대학 수료식서 1년 배움 마무리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서 127명 수료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이 6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니어대학(학장 우승희) 수료식을 개최했다.

세한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올해 시니어대학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목표로, 교양·취미·건강·음악 등 프로그램을 주 1회 2개반으로 운영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27명 어르신에게 수료증을 전달했고, 동시에 어르신 4명에게 공로상, 22명에게 개근상, 56명에게 정근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대표로 정근상을 받은 임영심 어르신의 자녀가 영광에서 찾아와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배움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니어대학을 마친 모든 분들에게 축하 드린다. 시니어대학은 물론이고 읍·면 노인복지회관도 활성화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2024 영광 방문의 해' 슬로건 공모

오는 25일까지 누구나 응모...1천만 관광객 유치 구심점 마련

영광군은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영광 미래 100년을 선도해 나갈 관광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1천만 영광 관광객 유치라는 비전을 널리 알리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영광 방문의 해' 대표 슬로건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2024 영광 방문의 해'의 홍보와 1천만 관광객 유치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15자 이내의 문구로 백수해안도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4대 종교문화로 대표되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관광도시 영광군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영광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표현이다.

공모 신청서는 영광군 홈페이지-고시/공고 '2024 영광 방문의 해' 슬로건 공모 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 후 공고문에 안내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1차 서면,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쳐 2024년 1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작은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의 구심점이 될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되고 부상으로 상금 500,000원이 지급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볼거리 제공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무안군은 지난 1일 연말연시를 맞아 삼향읍 남악 중앙공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희망의 불빛, 8m 높이의 대형트리 점등으로 아름다운 겨울밤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남악 중앙공원에 2020년부터 대형트리와 주변을 밝혀 줄 스트링 라इट을 설치하고 트리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남악인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트리 맞잡으로 소문나 '연말에 꼭 한번 들리게 되는 남악신도시 야경 1번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트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점등되며 내년 설 명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제13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 개최

이틀간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열려

함평군이 '키다리 아저씨와 멸종위기 식물 공부'란 주제로 제13회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지난 9월~10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교육과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13번째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틀간 1,063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보호, 친환경생활, 자연과 하나 되는 일상 등을 강조하며 일반 사람보다 2배 큰 키의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풍선 인형 만들기, 멸종위기 야생식물 관련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어린이를 비롯한 관람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